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 동 훈 전 지 열[†] 신 지 영[‡]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는 9명의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연구참여자의 진술로부터 12개의 구성요소와 32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구성요소는 '엄마의 수감으로 인하여 상처입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 '수감 된 자신이 자녀에게 죄인이 됨', '나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 '살아갈 이유로서의 자녀', '출소 후 엄마의 수감이 자녀에게 남은 잔재를 확인', '출소 후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모습', '출소 후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경험', '출소 후 내 앞에 놓인 가족 갈등', '비운 뒤 굳은 땅', '엄마의 부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향후 국가 및 사회에 기대하는 영역' 이다. 여성출소자들은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양육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었으나, 수감생활과 출소 후에 자녀와의 관계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출소전후로 어머니로서 자녀와 관련된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성출소자의 고유한 경험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갈급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여성,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 자녀양육, Giorgi, 현상학적 연구

* 본 논문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2015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심층면접자료를 일부 활용한 연구임.

† 교신저자 : 전지열,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110-74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명륜3가) 호암관 204호, Tel : 02-740-1984, E-mail : yeori102@hanmail.net

‡ 신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출소자들이 당면하는 현실의 벽은 하늘처럼 높다. 수감자들은 출소 후 의식주 문제나 재정문제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며, 가족과의 관계, 지역사회로의 적응 등의 측면에서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경험한다(최영신, 2009). 법무부에서는 전체 출소자 중 재수감 되는 비율이 지난 2년간 22.2%라고 밝혔는데(굿모닝충청, 2016. 01. 21), 이는 많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적응에 실패하며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감자들이 출소 전후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처우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수감자 및 출소자의 성별에 대한 구별 없이 수감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조망되어 왔다(최인섭, 전영실, 1992).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이해와 수감자의 처우 면에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 범죄자와 수감자에 대한 처우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기존의 범죄원인론과 범죄자들을 위한 처우가 남성 범죄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기광도, 2011), 여성범죄를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수정, 양원석, 2011). 여성범죄가 전체 범죄 중 16.3%를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점과(법무연수원, 2014), 전체 출소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출소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마이데일리, 2008. 08. 18), 여성 수감자의 출소 전후 경험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감 이후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는 남성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여성은 수감 이후 남성에 비해 자녀 및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이영란, 2003; 최영신, 황정임, 2006). 여성 수감자에게 가족과 자녀양육 문제가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여성의 가족 내 지위와 역할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성수감자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주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Coll, Miller, Fields, & Mathews, 1998). 자녀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남성수감자보다 여성수감자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자녀양육 문제는 수감생활 중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여성수감자는 자신이 수감된 동안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배다현, 신성만, 2008). 수감 동안 가족과 강한 유대감을 경험한 여성 수감자들은 심리적 문제가 경감되었고, 출소 후 약물 사용과 같은 일탈행동 또한 감소하였으며, 재범률도 다른 수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Covington & Bloom, 2003). 또한 수감된 여성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속죄의 일환으로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를 경험하는데, 어머니로서의 양육행동은 이러한 자살사고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규옥, 2007).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출소 후 자립과 사회적응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출소자의 재적응을 위한 핵심요인은 가족과의 관계이며,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윤호, 2002). 김인숙(1992)은 자녀가 있는 여성출소자 중 30.6%가 재사회화에 성공하는데 반해, 자녀가 없는 여성출소자 중에서는 15.7%만이 재사회화에 성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수감자들 중 89%는 출소 후 자녀양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는 출소 후 자

립과 사회 적응에 대한 크나큰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es, 2004). 이렇듯 여성수감자는 수감생활이나 출소 후에 자녀와의 관계 복원과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성수감자에 비해 열악한 자녀양육 조건에 놓여 있다. 수감 중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수감자의 비율은 60%인 반면 여성수감자의 비율은 40%에 불과했으며, 여성수감자는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 자녀양육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박영숙, 2007). 또한 이혼한 여성수감자의 52.2%가 배우자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1997). Travis, McBride 및 Solomon(2003)는 수감되는 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한부모이며, 여성수감자 자녀의 52.9%는 수감자의 친정어머니에 의해 양육되고 가족과 친척이 없는 경우 9.6%가 양육시설에 맡겨진다고 보고하였다.

수감생활과 출소 후 자녀양육에 대한 열악한 조건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여성수감자들은 자녀와의 분리문제, 양육권, 자녀 건강, 자녀의 안전, 자녀와의 접촉,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크게 염려한다(Hairston, 1990; Henriques, 1982). 수감생활로 인한 자녀와의 분리는 여성 수감자에게 그 자체로 좌절감을 주는 사건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실패감을 경험하게 만든다(Beckerman, 1991).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은 자녀와 떨어져 있는 생활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Turek & Loper, 2006). 여성수감자들은 수감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어머니로서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자각한다(Baunach, 1979). 내면에 지니고

있는 좋은 어머니(good mother)로서의 정체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도 한다(Ferraro & Moe, 2003). 자녀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도울 수 없고, 자녀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도 알지 못하는 수감 상황을 비판하며 무력감을 느낀다(Morash & Schram, 2002). 더욱이 여성수감자의 심리적 외상은 자녀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가 자신과 동일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막고자 하지만 어머니의 출소 후에도 빈곤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어려움을 모두 가중시킨다(Greene, Haney, & Hurtado, 2000)

여성수감자는 종종 자신의 역할을 대리해줄 양육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염려로 고통스러워한다(Leapheart, 1997). 여성수감자를 대신하여 배우자와 가족, 친척이 자녀양육을 도맡게 될지라도 직접 자녀양육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자책감으로 낙심하면서도, 수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염려하며 접견이나 접촉은 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이동훈, 신지영, 김진주, 조은정, 2016). 수감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단절은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한다(Reisig, Morash & Lee, 1999). 수감 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양육을 도맡았던 여성들은 수감 이후 부모나 친척, 혹은 배우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Enos, 2001). 더욱이 여성수감자가 자녀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수록 어머니와 자녀간의 접촉기회는 더 줄어들는데, 자녀와 접견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여성수감자의 우울증 경향은 심화된다(Poehlmann, 2005). 수감생활로 인한 자녀

와의 격리는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은 자녀들이 가족 내 어머니의 위치를 새로이 정하게 되면서 여성수감자들의 출소 후 가족 내 적응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Fox, 1981). 이는 여성이 출소 후에도 자녀와의 재결합 문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awkins, 1995).

한편 여성수감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한 주 양육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작용한다. 수감기간과 상관없이 수감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정적인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Urban & Burton, 2015). 수감자의 자녀들은 특히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조병준, 이희정, 2009; Adalist-Estrin & Mustin, 2003; Murray & Farrington, 2008),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며(Foster & Hagan, 2013), 심리적 부적응상태를 경험한다(Dallaire, Zeman, & Thrash, 2015).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분리로 인해 어머니를 향한 실망, 분노, 불안 등을 경험하며,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다(Hagen & Myers, 2003; Roberts, 2000). 어머니의 수감으로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는 곧 행동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양육을 제공하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녀들의 학업수행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빈곤에 시달리며, 결국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양상을 나타낸다(Cho, 2009; Hale, 1988; Hostetter & Jinnah, 1993; Huebner & Gustafson, 2007; Stanton, 1980; Murray, Farrington, & Sekol, 2012; Turek & Loper, 2006). 수감된 부모의 자녀들이 직면하는 분노와 유기당한 느낌 등의 감정은 곧 자녀의 학교생활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ampfner, 1995; Poehlmann, 2005). 이는 곧 어머니의 수감 사실 자체가 자녀의 역기능적인 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불어 수감사실 공개 여부는 자녀와의 신뢰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린 일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Adalist-Estrin, & Mustin, 2003), 수감 중 어머니를 접견하러 오거나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nzalez, Romero, & Cerbana, 2007). 이처럼 해외연구들의 경우 여성수감자가 자녀와의 접촉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보고되지만(Tuerk & Loper,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수감된 부모들은 교도소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상당수의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신연희, 2015; 전영실, 신연희, 김영식, 2007).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어머니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부재를 경험하며, 부모와 유대감을 쌓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수감자가 출소하더라도 수감 중 경험하였던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자녀와의 소원해진 관계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수감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여전히 자녀로부터의 신뢰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 지원은 여성수감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출소 후 재적응 뿐 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수감자의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근

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Murray & Farrington, 2006). 미국의 여성 수감자와 자녀를 위한 정책지원은 자녀 접견,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과 상담, 한부모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출소 후 자녀 양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지역사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된다(이동훈 외, 2016). 또한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거나 이혼 후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출소자를 위해 주거지원과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가족과의 화상접견서비스의 시행이나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녀와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박선영, 신연희, 2012). 이렇듯 국외에서는 수감생활과 출소 후 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한국은 그동안 남성 위주의 교정정책과 수감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 수감자 및 출소자를 위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윤지영,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수감된 자녀들이 4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법무연수원, 2014), 여성의 출소 전후 자녀양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머니의 수감사실은 여성 자신과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Dallaire, 2007; Gabel & Johnston, 1995; Mumola, 2000; Poehlmann, 2005)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수감생활을 경험한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소수자로서 여성 수감자 및 출소자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해봄으로써 여성의 출소 전후 자녀양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출소자와 관련하여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재소자의 자녀관계(신연희, 2002), 부모의 수감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신연희, 2015), 여성 수형자와 자녀관계 회복을 위한 복지방안(박영숙, 2007) 등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질적연구로는 출소 후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변화(이동훈 외, 2016) 등이 있었지만, 여성수감자가 출소 전후 당면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기출판된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81-108> 논문의 후속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여성출소자들을 면담한 이후 연구참여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을 논문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감 생활 또는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문제의 어려움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을 탐색한 앞선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자녀양육 경험 내용을 토대로 질적분석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경험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이 본질적인 일반적 구조로 드러났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는 '여성의 수감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또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 9명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다른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 혼인관계 유무, 가족관계, 자녀연령대, 자녀동거여부, 현재 직업, 수감 중 자녀양육 제공자 등)와 수감사유 및 수감기간, 출소 후 경과기간은 표 1과 같다. 수감 중 연구참여자를

대신하여 자녀양육을 제공한 대상은 배우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자매였다. 연구자들은 공단의 추천을 받은 여성 출소자 22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 목적과 내용을 안내한 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22명 가운데 12명은 수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고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경험이 없었으므로 총 9명의 인터뷰 자료만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연령대	수감 사유	수감 기간	출소후 경과 기간	현재 직업	가족관계	혼인 관계	자녀 동거 여부	수감 중 자녀양육 제공자
1	40대	경제 사범	8개월	5년	주부	배우자(46)와 고등학생 딸 1명, 중학생 딸 1명	혼인 유지	동거	배우자
2	50대	경제 사범	10개월	3년	의류업	배우자(50)와 20대 성인 딸 1명, 고등학생 아들 1명	혼인 유지	동거	배우자
3	40대	경제 사범	8개월	5년	고객센터 상담사	고등학생 딸 1명, 초등학생 아들 1명	이혼	동거	친정 어머니
4	50대	경제 사범	21개월	5년	학원 운영	배우자(60)와 30대 성인 딸 1명, 20대 성인 딸 1명, 고등학생 아들 1명	혼인 유지	동거	배우자
5	40대	강력 사범 (살인미수)	4개월	5년	취업 준비	배우자(36)와 초등학생 딸 2명	혼인 유지	동거	시어머니
6	30대	경제 사범	8개월	4개월	여성지원센터 취업교육 및 자격증 준비	초등학생 아들 2명	이혼	별거	배우자
7	40대	경제 사범	3년	4개월	취업교육 및 자격증 준비	초등학생 딸 1명, 초등학생 아들 1명, 중학생 딸 1명	수감 중 이혼	별거	친정 어머니
8	40대	강력 사범 (존속살인)	5년	5년	요양 보호사	배우자(57)와 대학생 딸 1명	재혼	동거	언니
9	40대	경제 사범	6개월	8개월	취업 준비	배우자(56)와 20대 성인 딸 1명, 아들 1명	혼인 유지	동거	배우자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 및 심층면접 질문 개발 절차, 인터뷰 진행자에 대한 정보, 연구 시작 전 고지내용, 연구참여자로부터의 연구 동의 절차, 면담내용 전사과정, 자료정리방식, 연구참여자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연구자의 기출판된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81-108>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Giorgi(2002)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을 기술하는 분석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경험 세계를 드러내는 귀납적, 기술적 방법이다(이미정, 박승민, 2015; Omery, 1983), 여성출소자들이 수감생활과 출소 이후 자녀와의 관계 경험이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도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생생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인터뷰의 전사본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진술에서 각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자세히 설명한 후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 구조진술로 통합하는 절차를 따른다(Giorgi, 2004).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Giorgi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

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9명의 진술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주관적인 판단과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인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참여자 9명의 진술문을 읽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이 포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함으로써 의미 단위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각각 파악한 의미단위를 서로 비교하면서 동일한 범주로 묶이는 진술들을 바탕으로 125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수감 생활 및 출소 과정 동안 겪은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에 집중하며, 연구자간 반복적인 토의를 통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 단위를 학술적인 용어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의 자녀양육 경험에서 비롯된 의미단위에서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난 하위구성요소를 확인했고 하위구성요소를 통합하여 범주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하위구성요소와 구성요소를 토대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기술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동안 면담을 실시한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선정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기술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다수의 질적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출판한 경험이 있는 질적연구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분석과 기술 내용을 지속적으로 감수 받은 후 수정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또한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여성출소자의 복지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여성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로부터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의 사실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추후 면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경험을 재확인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성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이 여성 출소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세계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연구가 실시된 상황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도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다수의 질적연구 출판 경험이 풍부하고 질적연구 방법론 관련 교육을 오랫동안 실시해온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에게 연구자들이 도출한 의미단위가 학문적 용어로 명명 되었는지, 하위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가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범주로 분류된 내용이 서로 공통성을 갖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수와 자문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선입해를 점검하였고, 연구과정 내내 모든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Padgett(1998)가 제안한 절차를 따랐다. 먼저 연구자들은 관련 문헌이나 이론, 동료 연구자의 의견을 활용하

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 선정 단계부터 본 논문을 기술하는 단계까지 동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강한 권유나 회유는 삼갔다. 연구참여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2014-10-001-004).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숙소나 숙소 주변의 공간, 여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인별 1회씩 18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여성의 수감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자녀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25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공통된 속성을 지닌 반응들로 묶어 32개 하위구성요소, 12개의 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의미구성단위와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 기술

표 2.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목록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엄마의 수감으로 인하여 상처입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	어른이아 된 자녀	초등학교 자녀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안쓰러움 동생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집안 일을 거들어 주며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준 자녀에게 고마움

표 2.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목록

(계속 1)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엄마의 수감으로 인하여 상처입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자녀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을 엄마 탓을 하면서 원망함
		나로 인해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이 가는 게 염려됨
		자녀가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을 당해 학교를 여기저기 옮겨 다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불안해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게 됨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던 자녀가 엄마의 수감 이후 여러사람 앞에 나서지 않는 성격으로 변함
		과거에는 밝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성격을 지녔던 자녀가 친구들과 관계에서 말수가 줄고, 예민해지며 화도 잘 내는 성격으로 변화함
		엄마를 대신하여 양육해주는 할머니를 무시하는 자녀를 보며 자녀의 반항심을 체감함
		엄마의 수감생활 동안 비만이 된 자녀를 보며 가정에서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함
		엄마의 수감 직후 학교를 결석하고 밖으로 나옴
		수감된 자신이 자녀에게 죄인이 됨
수감으로 인해 엄마로서 자녀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함		
먹을 것, 빨래 등 하나부터 열가지 자녀를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시달림		
수감 중 친척집에서 거주하던 고등학생 자녀가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에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슴이 아픔		
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의 학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성격이 멀어져서 속상함을 느낌		
힘들어 하는 자녀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고 죄스러움		
자녀가 대학을 포기하자 선생님들이 왜 안가냐고 다그쳤으나, 선생님께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대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짐		
한창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녀를 친척집에 살게 한 것이 미안함		
수감된 상황에서 자녀가 면회를 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만 잡고 마음만 아파함		
힘들 때도 대화할 수 있는 역할조차 해주지 못하고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함		
자녀에게 부끄러움 가리기	남편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지켜주지 못함	수감생활동안 아내 관한 남편의 욕설과 헐담에 자녀가 지속적으로 노출됨
		수감생활동안 아내의 폭력적인 부분을 자녀가 배울까봐 노심초사함
		아버지의 폭력 아래 무력해진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낌
		수감생활동안 남편이 아내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감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고 거칠게 대함
		상도 많이 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인생에서 전과가 있는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됨
		자녀에게 구속되는 모습을 보일까 두려운 마음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경찰을 피해 잠적함
가족의 제자리 지키기	가족의 제자리 지키기	자녀가 수감된 자신을 만나면 상처받을까봐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함
		면회를 올 때마다 우는 자녀를 보고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낌
		수감기간 동안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대신 양육하며 엄마로서 역할을 함
		다른 수감자 남편들이 이혼서류를 교도소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낌
		여자는 남자 병수발을 해도 남자는 여자 병수발을 못한다는 말이 있듯 남자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임에도 끝까지 견디준 남편에게 고마움
		엄마의 수감에 대한 충격으로 성격이 많이 떨어진 자녀를 담임선생님이 도와주어, 자녀가 고등학교에 무난하게 진학함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주변사람들	아내 수감 중 남편이 일찍 출근하고 나면 옆집 이웃이 자녀를 깨워 등교를 준비시켜줌
		자녀가 삔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기타를 배우는 등 취미생활을 함께해 주는 교회 형들 덕분에 방황하지 않고 지냄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이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오히려 음식을 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을 느낌
		국선 변호사가 도움을 주어 수감 전에 주민 센터에서 SOS 위기가정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해서, 법정구속과 동시에 신청으로부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지원비 받기 함

표 2.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목록

(계속 2)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감춤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둘러댐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져 외국으로 간 것으로 자녀에게 설명함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을 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부모의 수감사실은 감춤
		자녀가 성인이 돼서 판단력이 생길 때까지는 수감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성격이 강한 큰 아이에게는 수감사실을 알렸으나 여린 막내에게는 수감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알리지 않음
	수감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림	수감 중 모습을 보면 기억에 남을까 염려되어 알리지 않음
		자녀가 가족을까봐 알리지 않음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리진 않았지만, 법무부 관할 상담 등으로 자녀가 은연중에 알고 있을 것으로 느낌
		아들이 어려서 충격 받을까봐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아들이 법정구속으로 일주일동안 집에 오지 않는 엄마를 찾아 결국 남편이 아들에게 얘기함
		경찰이 집을 방문하여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을 알림
살아갈 이유포로서의 자녀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자녀	감방에 다녀왔다고 묻는 자녀에게 돈을 버느라 외국에 머물렀던 것이라며 둘러 댔지만 알고 있는 것 같음
		자녀가 엄마의 수감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씩 단계별로 그대로 얘기함
		아들이 수감 상황을 안보고 혼자 상상하게 하는 것보다 충분히 설명해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현실이 녹록치 않아 힘들거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힘으로 힘껏 살아감
	현실 극복의 동반자로서 자녀	가족 내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가족애"를 실감함
		수감생활동안 자녀의 존재 덕분에 자살 충동을 가라앉힘
		자녀가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이 됨
		큰 자녀가 대학을 포기한 채 가정으로 역할하면서 생활비 뿐 만 아니라 월세와 동생 용돈까지 챙겨 준 데 대해 고마움
		출소 후, 문제가 있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임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한 자녀의 원망어린 마음
출소 후 엄마의 수감이 자녀에게 남은 잔재를 확인	자녀에게 심리적 위기 체감	출소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감정기복과 불안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느낌
		자녀는 엄마의 수감 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꺼리고 사회적 활동에서 철수함
		다른 사람에게는 다 친절해도 엄마에게는 다정하지 않은 자녀를 보며 가슴이 아픔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자녀	출소 후에도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해 자녀가 민감하게 반응함
		잠시라도 엄마가 안보이면 확인하려고 하고 가족 중 한사람만 안보여도 불안해 함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분노 조절에 실패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동적 문제를 나타냄
출소 후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모습	엄마로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낌	엄마를 대신하여 오랫동안 자신을 양육해온 할머니에게 합부로 대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음
		마음 속 상처를 "엄마 때문"이라고 탓하며 반항함
		엄마의 빈자리를 상처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 미안함
	자녀양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	자녀양육 및 가정부양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죄의식, 죄책감을 느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엄마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낌
		수감 중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출소 후에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해 주고자 함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게 안타까워 당장 몇 백이라도 "내 돈"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재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홀로 자립하여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자 함	
	출소 후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감생활동안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계발에 노력을 기울임	
	출소자로서 수혜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함	

표 2.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목록 (계속 3)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출소 후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모습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함	출소 후 아르바이트로 적은 돈을 벌지만, 여전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녀를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좌절함 이혼한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어 양육을 위한 주거지원 등을 수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없음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돌보아 주지 못해 안타까움
	신분노출의 불안함	출소 후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에 수감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될까봐 염려함 출소 후 받는 지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통해 출소자와 자녀들이 주변의 편견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함 거주하는 집이 출소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어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출소 후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경험	정보가 힘	출소 전에 출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구직지원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물리적 자립을 달성함 교정시설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교육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함
	출소 이후에도 가지지 않은 자녀와의 감정적 양극	엄마의 부재로 힘들어했던 자녀가 성장하면서 반항심을 표출하며 자녀와의 사이가 소원해짐 자녀와의 감정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 슬에 의존함 출소 후 여성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자녀로부터 연락을 한 통도 받지 못해 서운함
출소 후 내 앞에 놓여있는 가족 갈등	부부갈등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녀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출소 후 아이들과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움
		출소 후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함
		출소 후 폭력에 괴로워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엄마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자녀도 괴로워함
		출소 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어쩔 줄 모름
대리양육자의 비난과 불안		엄마 편을 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남
		남편은 자녀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을 불모살아 이혼을 거부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음
		남편은 아내의 주시거레로 인한 빚으로 가세가 기울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림
		부부갈등이 있음에도 자녀에게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함
비은 뒤 굳은 땅	극복 후의 성장하는 자녀	수감 중 자녀를 양육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난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낌
		수감 중 자녀양육을 도맡아준 언니는 그동안 자녀를 대신 돌보며 힘들었던 마음에 출소자에게 울분을 터뜨림
		자녀와 배우자가 수감이라는 힘든 시기를 잘 견뎌주어 고마움
		자녀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
엄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수감 경험 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낌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동생을 챙기고 돌보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는 자녀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자립심을 생겨났음을 실감함
		살이 찌고 취학권으로 성적이 떨어졌던 자녀가 살도 빼고 성적이 150등 오르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안심함
		수감된 엄마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탈선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자녀가 대견스러움
엄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수감 중 의료보험료 할인을 지원받음
		출소 후 공단의 주거지원 덕분에 저축이 가능해짐
		출소 후 가장으로서 자녀양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이 절실하였으므로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 등이 도움이 됨
		출소 후 대학생이 자녀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과외활동을 지원받음
엄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출소 후 자녀가 대학생 멘토와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음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의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문제에 대한 조언은 자녀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맞아서 많은 도움이 됨
		출소 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문화카드 지원을 통해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됨
		출소자 자녀들에게 제능기부처럼 제공되는 봉사활동 기회는 자녀가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함

표 2.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목록

(계속 4)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엄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지원	출소 후 부부가 함께 가족프로그램, 상담에 참여하고 자녀양육 방법을 교육 받는 등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자녀는 미술 심리치료를 받은 이후 통명스러운 태도에서 살고 잘 웃는 태도로 변화함
향후 국가 및 사회에 기대하는 영역	자녀 교육 영역	수감생활동안 아침에 자녀의 학교 등교를 위해 깨워주거나 아버지가 직장에 다녀오기 전에 공백을 챙겨줄 수 있는 양육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함
		수감생활동안 자녀가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등 필요한 것을 잘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국가가 지원해주었으면 함
	자녀와의 관계회복 영역	자녀에게 과외를 제공해주는 키다리 프로그램이 장기간 제공될 필요가 있음
		엄마의 수감 기간 중 자녀 간의 접견 횟수와 시간을 늘려야 함
		재판기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화상을 통해서라도 자녀와 자주 만나고 싶음
		자녀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장기수나 특권층에게는 특별면회가 있어서 얼굴을 보고 면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단기수는 재판기간동안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서 가족을 만날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함
		딸과 접견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거나 하룻밤 자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음
		수감생활 도중 자녀들과 자주 화상 접견할 수 있도록 앱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영역	출소 후 주거지원을 받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함	
	수감기간 동안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바랍	
수감 시설에서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출소 전에 출소 후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을 수감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주었으면 함	
	공단에서 출소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알려주었으면 함	

엄마의 수감으로 인하여 상처입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

어머니의 수감으로 자녀들은 다양한 상황적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감생활을 하며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수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감기간 동안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친구들과 어울

리기보다 집에서 동생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집안일을 챙기는 등 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어린 자녀를 보며 연구참여자들은 깊은 아픔과 무기력에 시달려야 했다.

“큰 애가 그 때서부터 2, 3년 동안에는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게 조금 강하게 있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1)

수감된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감을 맞이하면서 분노, 원망, 불안 등의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했다.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연구참여자 7), 친척집을 전전하며 돌아다니야만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어머니를 원망스러워 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5의 자녀는 유치원 발표회 때 어머니가 오지 않았던 기억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이가 생각을 해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일단은 불행하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비슷한 형편 아이들이랑 어울리려고 하고. 그리고 할머니랑 오래 살다보니까 할머니를 무시한다거나.” (연구참여자 7)

“왜 유치원 발표회에 안 왔냐고 했을 때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그냥 엄마가 집 나가있었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그게 또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어려서 기억이 안 날줄 알았는데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녀들의 심리적 변화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연구참여자의 우려대로 수감 이후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걸돈하거나,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하여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4

의 자녀 중 막내아이는 어머니의 수감 이후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없어도 계속 찾는 불안함이 생겼고, 학교에서 다녀오고 나면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외부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식습관이 관리되지 않아 비만이 되는 자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 4).

어떤 경우는 자녀가 어머니 수감 이후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을 돌봐주시는 할머니를 무시하며 반항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8).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그저 지켜보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가 모두 자신의 탓인 것으로 느끼곤 하였다.

“성격이 많이 나빠졌어요. 나빠졌다기보다 우리 딸이 외향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일대일로 하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대요.” (연구참여자 2)

“그때 제가 갔다 와서 딸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죠. 애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애는 오해를 했었잖아요 저한테. 성적이 그렇게 못하던 애가 아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살이 한 10kg가 썩었고, 끝에서 4등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게 무섭구나. 내가 없는 그사이에 반에서 밑에서 4등.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4등이래요. 예?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했더니 밑에서 4등이에요.” (연구참여자 3)

수감 된 자신이 자녀에게 죄인이 됨

연구참여자들은 수감 이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과 수치심에 시

달려야 했다. 수감 중에 자녀를 돌볼 수 없다 보니 자녀가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슴 아파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연구참여자 4). 생계유지가 빠듯하여 자녀의 학업을 위한 지원을 끊게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2의 고등학생 자녀는 총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자랐지만 어머니의 범정 구속과 함께 대학을 포기하고 전화상담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객의 항의전화와 욕설을 견뎌내면서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된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진로로 삼은 야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잘 데가 없어서 고모네에서 자고 그랬어요. 고모네서 자다가 우리 작은 애가 고3이었던거거든요. 애가 한참 먹을 나이에 못 먹고 그러니까 애가 고모네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빠 밤에 일하고 있는데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영양실조래요. 병원에 입원하고 링겔 맞히고 그렇게 해서 퇴원하고 어렵게...” (연구참여자 4)

“하나에서 열까지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했다는 거죠). 일단은 빨래고 먹을 거고 간에. 일단은 지가 어렵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도 혼자

서 견뎌내야 했고.” (연구참여자 8)

한편, 이혼가정의 경우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줄 대상이 없어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더욱 컸다. 어머니를 대체하는 양육자로 친정어머니나 이모, 이혼한 아버지 등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연구참여자의 자녀를 대신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춘기 조카를 양육하던 이모의 힘들었던 심경을 들으며 가슴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고(연구참여자 8), 수감기간 동안 이혼한 남편의 손에 자란 자녀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망연자실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6).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제가 데리고 가야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술 먹으면 때리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건이 이래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첫째가 아빠랑 너무 못살겠다. 단지 걱정되는 건 중학교 올라가는데 내년애 애가 빼돌려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만약에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저한테 데리고 오면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제일 고민인 건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연구참여자 6)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는 악화된 부부 관계 사이에서의 갈등을 지켜보며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9의 자녀는 어머니를 모질게 헐뜯하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

였는데, 자녀가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 하지 않고 어머니를 감싸려고 하면 모질게 폭력을 당하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남편의 욕설과 험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아빠가 나 죽일 년이라고 애들 붙잡고 얘기해요. 모질게 못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얻어맞으면서도 엄마를 너무 모질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를 한 마디 한 마디 하면서 엄마가 나 빠지면 아버지의 역할은 그동안 뛰었다고 왜 그렇게밖에 엄마를 이끌어주지 못했다고 말하니까 아이들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밖에 있는 자녀가 이처럼 걱정스럽고 만나고 싶으면서도 자녀에게 자신의 수감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 상당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감상황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구치소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자녀에게 구속되는 모습을 보일까 불안에 압도되어 무작정 경찰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수감생활 당시 매주면회를 올 때마다 우는 자녀에 대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수감복을 입은 모습에 자녀가 충격을 받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신이 행여나 자녀의 미래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살인미수로 수감된 연구참여자 5는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타는

자녀의 앞날에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했다. 어머니가 이러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녀가 알게 된다면 기죽게 되진 않을까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괜히 그런 게 기억에 남을까봐. 그리고 애들 인생에서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아직도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저희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해요. 항상 상도 많이 타고요, 저희 큰 딸은 꿈이 검사거든요. 애들이 걱정이예요 사실. 구치소에서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 죄명이 살인미수라는 게. 저 같아도 좀 그럴 거 같아요. 되게 큰 짐이예요. 짐 덩어리. 저한테는. 후회도 너무 많이 되고.” (연구참여자 5)

“아이들이 있을 때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딸들이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갈 때 딸들이 따라 내려 왔거든요. 아빠한테 연락해서 이따가 아빠랑 함께 오든가 얘기 해 보든가 그리고 갔거든요. <중략> 제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데리고 오지 말고 엄마가 일 때문에 어디 갔다고만 설명을 해줘라.” (연구참여자 4)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양육자의 역할을 이어갔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연구참여자들이 수감생활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낙담할 때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면서 연구참여자들과 자녀들을 모두 그러안는 역할을 했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

이 수감된 동안 친정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존재가 못내 고마웠고 자신이 복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건) 엄마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제일 가깝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깐 떠나잖아요. 엄마는 아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애들 아빠한테 엄마가 생활비 한 번 안 받았거든요. 엄마 스스로 애들 키워주고 계시는데.” (연구참여자 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수감되었음에도 밖에서 자녀들을 거둬주는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수감 중에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접하는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애뜻한 마음을 느꼈다. 여자는 남자 병수발을 해도 남자는 여자 병수발을 못한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과 자녀양육을 혼자 거둬주는 남편에 대해 신뢰가 쌓여갔다.

연구참여자들의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아주기도 했다. 담임선생님은 성적 낮은 자녀의 학업을 도와 고등학교에 무난히 진학시켜 주었는가하면 자녀가 교회 형과 함께 어울리며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연구참여자 2). 옆집 이웃의 도움을 받아 아침에 자녀 등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연구참여자 1), 자녀의 남자친구 가족들은 심적 지지와 더불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반찬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3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SOS 위기 가정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해서 법정구속과

동시에 생활비 지원을 받아 자녀양육비용에 보탬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대리양육자로서 연구참여자의 역할을 조금씩 도맡아 주는 고마운 대상이었다.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몇몇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반면, 자녀에게 수감 사실과 이유를 투명하게 알리고 함께 다루어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감추는 연구참여자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의 구속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져 외국으로 간 것으로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 1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고 둘러댔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며 ‘진과자’라는 오명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수감사실을 은닉했다(연구참여자 1).

“저희는 괜찮은데 남들은 단순하지만 진과자라는 말로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애들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력이 있을 때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애들만 알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애들도 학교 가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싫은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못할 말 없지

만 얘기하고 싶어도 가족끼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외부에서 타인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자녀가 어머니의 수감 사실을 둘러싼 주변의 편견어린 시선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수감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시절동안은 자녀가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바랐다. 엄마가 범죄자라고 하면 행여나 자녀가 기죽을까봐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수감이 자녀에게 주홍글씨처럼 남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만약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게 되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진 않을까, 방황과 비행으로 치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연구참여자 6), 구치소에 수감된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에게 잔상으로 남아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연구참여자 5).

한편 어떤 경우는, 연구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어린 아들에게 수감 사실을 감추려고 했으나, 법정구속으로 일주일동안 집을 비웠을 때 남편이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하였고, 연구참여자 4는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으로 인한 부채로 구속된 연구참여자 7은 순위형님에게까지 돈을 빌려 집안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구속사실을 불가피하게 알게 되기도 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받게 되는 지원과 혜택으로 어렵פות이 수감 사실을 짐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법무부의 지원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던 자녀가 수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요. 일부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그런 게 기억에 남을까봐. 그리고 애들 인생에서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연구참여자 5)

“(자녀가 어머니의 수감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법무부 관할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어렵פות이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럴 걸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수감사실을 아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털어놓고 설명하는 것을 회피하고, 최대한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에게 수감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는 자녀에게 굳이 수감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6은 구치소에 다녀왔냐고 묻는 자녀의 질문에 끝까지 수감사실을 감추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짐작하고 있던 자녀들이 이러한 암묵적인 침묵에 더 자세히 묻지 못하거나 짐짓 모르는 척 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4는 자녀가 수감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녀가 은연중에 내비친 말로 수감사실을 모른 척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 혹시 구치소 갔다 왔냐. 감방 갔다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외국 돈 벌려고 갔다고. 아니라고. 무슨 얘기 들었냐고 이모가 얘기하는 말 들었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뭐 잘못했냐고. 감방 가는 건 잘못해서 가는 건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엄마 외국 다녀왔다고 잠깐 돈 많이 벌려고 외국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애가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거기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웠어? 이러는 거예요. 은연중에. ...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중략> 어?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 애가 아는데 표현을 안 하는 것 뿐 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들만 있을 때 물어봤어요. 00아, 엄마가 집에 안 왔을 때 어디 갔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엄마는 알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알면서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 그거예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수감 사실에 대하여 듣게 된 적은 없지만 수감 사실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해하고 모르는 척 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어머니의 체포 현장을 직접 겪으면서 수감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있는” 자녀는 어머니의 수감 후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충격에 시달렸다(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하면서도, 개인 내적인 충격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반면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알릴 것이라면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만약 수감사실에 대해 자녀가 묻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 4는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해진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라리 수감 사실을 투명하게 알렸더라면 자녀도 납득하고 어머니의 빈자리에 적응했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다.

“애들이 물어봤을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는 건데 얘기했을 때 끝이곧대로 얘기를 하면 판단은 자기 몫인 거예요. 일단은 알고서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해 주고 대충 물어봤을 때는 반만 얘기해 주고 지나고 또 물어보면 그때는 자세히 얘기를 해야죠. 얘기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그때 그 상황이 또 오면 그 때는 아들한테도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보고 머릿속에 혼자 상상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살아갈 이유로서의 자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존재는 하루빨리 출소 후 자립을 이루어 아이들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 수감과 이혼의 풍파를 겪은 연구참여자 6은 경제적 궁핍 상태에 시달렸으나 자녀의 존재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참여자의 말마따나 “희퇴이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연구참여

자 7은 자녀들의 존재 덕분에 철창 안에서의 자살 충동을 다잡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기간동안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양육을 제공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는데 자신의 빈자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하게 지내는 자녀를 향해 고마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해 심리적 지지와 사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가장으로서 역할 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크나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녀가 대학을 포기한 채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동생의 용돈까지도 챙겨주며 가장 노릇을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

“딸이 엄마 아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쉬는 날 쉬고 가족끼리 먹고 싶을 때 같이 사먹고 항상 건강위주로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엄마 아빠 돈 모아서 우리 줄 생각 하지 말고 우리만 키워서 자리만 잡으면 건강하게 항상 대화 하면서 이렇게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가정이라는 게 그렇지. 제가 우리 아들, 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 딸은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좋아하고. 가족이라는 그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마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철이 든 거 같아요. 제가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생스럽긴 했는데 거기서 저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자식들 때문에 우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9는 출소 후 자녀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처럼 자녀의 존재는 연구참여자들이 수감생활을 극복하고 출소 후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출소 후 엄마의 수감이 자녀에게 남은 잔재를 확인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꺼리고 사회적 활동에서 철수하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하여 극도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어머니가 안보이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하였다(연구참여자 4).

자녀의 심리적 위기는 지속적인 방황의 상태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 7의 자녀는 분노 조절에 실패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밤새 TV를 보는 등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양육해주는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8의 자녀는 어머니와 대학입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자녀의 방황 앞에 연구참여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신의 수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출소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기간동안 자녀와 떨어진 마음의 틈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하여 원망스러워하기도 했고(연구참여자 8),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출소한 어머니에게만 차갑게

대하며 마음 속 상처를 엄마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8은 자녀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상처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 미안한 마음 뿐 이었다.

“일단 엄마 때문에. 무조건 엄마 때문에. 근데 그게 옳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아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뜻대로 안되면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8)

출소 후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모습

출소 후 다시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온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과 가정 부양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딛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녀를 내 힘으로 키워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소자로서 수혜할 수 있는 창업지원,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했다(연구참여자 7). 더 이상 자녀와 떨어져 살지 않도록 당장 몇 백이라도 “내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연구참여자 6은 수감기간동안 출소 후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계발을 하며 자녀와의 만남을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당면하게 되는 한계에 좌절하고 있었다. 출소를 했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6은 이혼을 하면서 자신이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녀가 등본 상에 없다는 이유로 출소 이후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자녀의 곁으로 돌아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했지만, 이처럼 경제적 문제와 가족 해체 및 가족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자녀와 별거하고 있거나 자녀와의 만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주거지원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됐죠. 점수가 제일 높은 게 그거거든요. 아이들이래요. 나머지는 자격증 따면 되고. 하지만 단지 아이들이 등본 상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원받고 싶은데.” (연구참여자 6)

출소 후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경험

출소라는 현실 앞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출소자의 자녀로서 받게 될 사회적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연구참여자 7은 출소 후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에 수감사실이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출소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였고 모든 지원과 교육에서 출소라는 타이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출소자가 받는 지원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어 출소자와 출소자의 자녀가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느꼈다. 연구참여자 5는 거주하는 집 또한 출소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되어 상처를 받진 않을까 염려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의 신상에 수감이력이 남아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저희가 돈만 있으면 이사를 가겠죠. 그

런데 없으니까 주거지원을 받는데, 주거지원이라는게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그냥 우리집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현관문에 보면 LH나 주거지원이 써져 있잖아요. 붙어져 있잖아요. 공문같은 게. <중략>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그러는데, 조금 더 크면 애들이 그걸 읽어보고 우리가 나라에서 그런 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럴까(빠딱하게 나가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5)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움츠러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항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기를 시도하였다. 수감생활동안 출소 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구직지원,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 숙지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위한 자립을 꾀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출소자를 위한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의 내용을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접했지만, 교정시설 차원에서 수감자들에게 출소 전에 출소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교육한다면 수감자들이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혀 (출소 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었어요. 알았으면 바로 하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정신을 좀 차렸겠죠.” (연구참여자 5)

출소 후 내 앞에 놓인 가족 갈등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먼저 자녀가 어머니의 수

감으로 인한 감정적 양극을 표출했다. 어머니의 부재로 힘들어했던 자녀는 성장하면서 반항심을 표출하였고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어머니가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연락 하지 않은 연구참여자의 자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음을 주에 의존하기도 했다.

어머니 편을 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아래 자녀는 무력해졌고 아버지가 폭력을 가할 때마다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연구참여자 9는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당장 이혼을 거부할뿐더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 현실에 좌절하였고 남편의 폭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참여자 9의 마음을 불모삼아 이혼을 해주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은 연구참여자의 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부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연구참여자 7에게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7의 배우자는 아내의 주식거래로 인한 부채로 가세가 기울어 자녀에게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리 아이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아내를 원망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 7과 남편은 부부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자녀에게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녀양육을 둘러싼 부부의 갈등은 곧 친인척과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연구참여

자 6은 수감 이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로부터 “네 탓이다”라는 비난을 경험하였다. 남편의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별거하게 된 연구참여자 9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수감기간동안 자녀와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 수감생활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의 처지를 어머니로서 자격 없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난 앞에 자녀를 보고 싶어도 자주 보지 못하는 연구참여자 9의 가슴은 찢어졌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들 이렇게 되고. 오히려 재육을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6)

수감생활동안 친언니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한 연구참여자 8은 언니와 갈등을 겪었다. 어머니가 수감되어있는 동안 자녀는 이모의 방 두 칸 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힘들게 지내면서 점점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8을 대신하여 방황하는 자녀를 관리해야했던 언니는 참여자에게 자녀양육 때문에 겪은 고통을 토로하였다.

“방황을 많이 했다고 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나오니까 언니가 나한테 화풀이하더라고요. 네 딸 때문에 속 많이 상했다고 힘들었다고. 그 때 한창 사춘기였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그랬나봐요.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8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따뜻하게 양육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언니가 자녀양육을 두고 생색을 내는 모습에 속이 상했다고 구술하였다. 갈 곳 없는 자녀를 거두어

준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딸을 양육하며 힘들었던 마음을 자신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못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갈등을 해소하고 자녀양육에 힘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 해체를 막고자 했으나 여러 장벽들이 참여자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수감 중 어머니로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점,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점 등이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고통에 무게를 가중시켰다.

비운 뒤 굳은 땅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이라는 역경을 통해 자녀의 어머니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실감했다. 연구참여자 1은 출소 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 애뜻함을 느꼈고, 자녀와 배우자가 수감이라는 힘든 시기를 견뎌주어 고마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3은 자녀가 자립심이 생겨 오히려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엄마의 빈 자리를 채워주었다고 진술했다. 어머니의 출소 후 성적이 급격히 오르고 켜던 살이 빠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녀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수감 중에는 많은 짜증을 내던 자녀는 어머니의 출소 후 다정다감해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된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것은 물론 탈선하지 않은 자녀가 대견스러웠다.

“음.. 자립심.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밑에는 동생이 있다

는 것을 애가 인식을 했죠. 옛날에는 엄마가 알아서 다했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동생이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에 애가 제가 없었던 그 빈자리를 자기 자리로 채웠죠.” (연구참여자 3)

엄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 준 국가의 출소자 지원 서비스

연구참여자들이 수혜한 국가 지원 사항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수감자의 출소전후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지원은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기존의 지원사항을 물리적 지원, 심리 및 교육적 지원으로 각각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으므로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수감 중 의료보험료를 30% 가량 감면받았고 연구참여자 2는 출소 후 주거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월세로 소비하던 비용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장으로서 자녀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이 절실했기 때문에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가 지원받은 상담과 교육은 주로 대학생 봉사자와의 과외와 멘토링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복지공단으로부터 파견된 대학생이 자녀의 학습을 돕고 개인적인 고민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에 만족하였는데, 대학생 멘토링 봉

사자는 대학 입시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의 눈높이에서 학습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한 언니오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출소 후 다시 경제활동으로 뛰어들어 여성출소자들은 미처 자녀에게 신경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의 학업과 심리상태를 점검해줄 수 있는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제가 (자녀의 교육) 케어를 못하죠. 그래서 복지공단에서 아까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대학생이 오면 아이들이 일단 어른보단 쉽게 접하잖아요. 언니 오빠라는 개념이 있어서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요. 저희 딸도 저 모르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딸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단 멘토처럼 교회 언니오빠처럼 꾸려 갈 수 있는 어떤. 그건 부모가 못하는 걸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문화카드 제도에 큰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국가의 지원금으로 한 달에 여러 번 도서, 영화, 연극 등의 문화생활을 무료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러한 문화생활이 또한 컴퓨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를 다녀온 딸이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접하고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수감자 자녀들에게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자녀들은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오히려 낙관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4의 자녀는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였고 예전 같으면 통명스레 화내던 일들도 웃으며 이야기하는 변화를 보였다.

향후 국가 및 사회에 기대하는 영역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과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동안 자녀를 대신 돌보아주는 대리 양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이 출근하고 집을 비울 때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양육서비스를 바랐고, 자녀가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도록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숙제를 잘 챙겨주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실감했다. 연구참여자 3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녀에게 과외를 제공하는 키다리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으나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정말 그것은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부모들이 일을 하러 가잖아요.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배달 일을 하러 가니까 애가 하루 종일 방

치해 있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동안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접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여겼다. 연구참여자 6은 자녀와 부모사이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수감자가 자녀를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는 기회를 제공받아야할 필요성을 실감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7은 자녀와 직접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못한다면, 웹캠을 활용한 화상접견이라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동안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의 빈자리를 매우며 양육하느라 심리적으로 소진된 친정어머니 또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정상이고 힘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오히려 엄마대로 지쳐있고. 엄마가 막 애들한테 욕도 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경제사범인 여성출소자의 특성상 출소 후 경제적 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참여자 9는 주거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 별거하고 있는 자녀를 집에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낙담했다. 주거지원을 통해 자신의 집이 생긴다면,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좀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은 수감 중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문제를 겪지 않도록 세금감면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출소 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직무환경에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의 취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그런 거는 안에 있을 때 생활이 싫어요. 딱 나오고 나서는 진짜로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기 전까지도 놀던 사람은 아니고 계속 일을 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취직 프로그램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면...” (연구참여자 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소 이전부터 수감시설에서 다양한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은 우연히 출소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나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감자들을 위한 출소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공단에서 출소자를 위하여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해 출소 후 매우 힘들었다고 하면서 구치소에 있을 때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공단에서 출소자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를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저는 실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출소하기 전에 우연히 그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출소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구인구직이라 그래서 그런 행사에 여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또 다 미성년자고. 항상 제가 마음 아파 있는 게 아이들 때문이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주거지원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주거 지원 이거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7)

“예. (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전혀 몰랐었어요. 알았으면 바로 하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정신을 좀 차렸겠죠... <중략> 그 사람들이 충고를 많이 해줬으면 더 아마 빨리 정신을 차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왜냐하면 그 때는 금전적인 것이며 뭐든지 다, 특히 그런 것들 되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중략> 구치소나 아니면 집행유예 받을 때나 그런 데에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5)

수감 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기술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구속 수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염려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더욱 큰 아픔을 느꼈다.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포기하는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거나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감이라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안정적인 거주지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머니 수감의 충격으로 압도되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했다. 성적이 떨어지고 왕따를 당한다거나 자기관리가 안 되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혼가정의 경우 특히 자녀를 돌볼 대상이 없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더욱 컸다. 어머니를 대체하는 양육자로 친정어머니나 이모, 이혼한 아버지 등이 있었지만 대체 양육자들 또한 남겨진 연구참여자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대체 양육자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를 맡아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연구참여자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원망을 들으면서도 밖에서 자녀들을 거둬주는 대체양육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해 주는 남편뿐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양육을 이어갔다.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자녀의 학업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가 하면,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을 하는 연구참여자도 많았다. 자녀에게 멘토 역할을 해준 교회 형이나 자녀의 등교를 챙겨준

이웃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주위사람들의 도움만으로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남편이 회사를 가고 없을 때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양육 서비스, 자녀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일대일 매칭 서비스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수감 중 한 자녀의 어머니로서 창살 밖의 자녀를 향한 염려가 가장 큰 근심이었다. 부모로서 자신의 수감이 행여나 자녀의 미래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 나중에라도 자신의 수감사실이 알려져서 자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머니가 범죄자라는 것을 의식하며 기죽게 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자녀라는 존재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출소 후 하루 빨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이후 자녀에게 자신의 수감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 상당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감상황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구치소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자녀에게 구속되는 모습을 보일까 경찰을 무작정 피해 다니기도 했다. 수감사실 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연구참여자마다 조금씩 달랐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적어도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반면, 자녀에게 수감사실과 이유를 투명하게 알리고 함께 다루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릴 것이라

면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느꼈고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사실에 대해 자녀가 묻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다시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와 여전히 자녀양육과 가정부양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출소 후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감생활동안 자격증이라던가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계발을 하며 자녀와의 만남을 준비하였고,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졌다. 출소자로서 수혜할 수 있는 창업지원, 주거지원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당면하게 되는 한계에 좌절하고 있었다. 현실은 여전히 출소자라는 이름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고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어머니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없었다. 출소 후 다시 경제활동으로 뛰어들어 여성출소자들은 미처 자녀에게 신경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의 학업과 심리상태를 점검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료보험 감면, 주거지원, 심리/교육적 지원, 취업지원 등 국가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또는 취업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출

소자 9명의 심층면담자료를 토대로 수감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자녀양육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와의 별거로 극심한 심리적 갈등에 시달렸고, 출소 후에는 오랜기간 떨어져 지낸 자녀와의 ‘틈’(박영숙, 2007)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출소자가 아닌 어머니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과 동시에 자녀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것은 연구참여자와 자녀 모두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었다. ‘무기력’이란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이다(박경숙, 2013; 정은, 신민정, 2014에서 재인용). 전교에서 우등생으로 주목받던 자녀가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하여 대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고, 한창 클 나이에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사춘기 자녀를 낯선 친척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고, 학업을 위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없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는 그 무기력감이 더했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성수감자들의 정신건강연구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연구결과(이영란, 2003)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수감자들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그 무기력감도 클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Reisig, Morash와 Lee(1999)는 여성수감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무력감, 고립감, 가족과 사회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호소한다고 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감자들에게는 그 죄책감과 걱정이 가중된다고 하였다(신연희, 2002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인 자신이 수감자라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수치심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졌으면', '취구멍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자기존재에 대한 공허감과 부적절감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인숙, 최해림, 2005).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경찰 눈을 피해 잠적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수감사실을 감추기도 했다. 자녀를 만난다 해도 마치 '자기가 없어져 있듯이', '취구멍에 들어가 있듯이' 면회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마음을 나누거나 누리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까지 놓을 순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미래를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자녀가 자신으로 인해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휩싸였다. 자신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남편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마음은 괜찮을까, 폭력을 그대로 배우지는 않을까, 어머니의 수감사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사회에서 외면당하

지 않을까, 자신의 수감경력이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수감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각종 정신건강 문제와 정적 연관성을 나타냈다(구현경, 김종남, 2014). 특히,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치심은 우울, 사회불안, 섭식장애, 중독, 자살, 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여러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인선, 최한나, 2013; 한영주, 이희진, 2012; Andrews, Qian, & Valentine, 2002; Hastings, Northman & Tangney, 2000; Leskela, Dieperink, & Thuras, 2002; O'Connor, Berry, & Weiss, 1999; 정은영, 신희천, 2014에서 재인용). 실제로, 여성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뉴욕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의 64%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83%는 약물관련 문제를 보인다고 조사되었다(Elizabeth, Risa, & Eileen, 1998, 배다현, 2008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재소자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범죄와 예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다현, 신성만, 2008). 특히, 범죄자가 아닌 한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분리되면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여성출소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수감 및 출소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당수의 여성범죄자의 경우 수감 이전에 이미 학대와 열악한 교육 및 생활환경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는데(MacCoon & Newman, 2003) 이것은 여성수감자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출소자

의 가정복원을 위한 교정 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연구(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에서도, 교정전문가들은 출소자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분노, 트라우마,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감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우려대로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구금으로 받는 상실감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영숙, 2007). 연구참여자 자녀들도 어머니의 수감 이후 큰 심리적 충격에 휩싸였는데, 자녀의 생활이 어머니의 수감에 압도되어 자녀는 더 이상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친구들과 밝게 잘 어울리던 유치원생 자녀가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하기도 했다. 따돌림을 당해 학교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자녀도 있었고, 자신을 양육해주시는 할머니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것은 어머니의 구금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Kampfner(1995)는 수감자 어머니를 둔 자녀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수감자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체포와 수감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구금에 대한 염려와, 향후 자신들이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고, 수감이후에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깊은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들은 정서적 욕구의 소외,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와의 약해진 연대, 권위에 대한 문제제기, 발달장애, 양육자의 잦

은 변화로 인한 불안감, 학대와 방치, 성적하락, 대인관계 기피,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박선영, 2009에서 재인용).

이처럼, 부모의 범죄행위로 인한 두 번째 희생자(신연희, 2002)인 자녀가 어머니의 수감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 수감으로 인해 겪게 될 심리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양육자를 제공해 주거나, 부모자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우 시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수감 중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 원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 구술하였는데, 수감생활 도중 자녀들과 자주 화상접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기도 하였고, 만남의 집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자녀들과 만나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 여성수형자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차훈진, 정우일, 2009)에서도 여성출소자들은 전반적으로 면회시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접견실 분위기가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너무 삭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 72.8%는 칸막이가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이루어져 어머니와 만나고 나서 부정적인 기분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수감 중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몇 년 동안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접 자녀

를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남편이 일을 다녀오는 공백 기간에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양육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구술하기도 하고, 자녀가 누군가와 일대일 자매결연을 통해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물건들을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했던 대학생 멘토 지원 프로그램처럼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심이 우러나오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감되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여성수감자와 불안한 자녀들에게는 안정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수감자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차훈진, 정우일, 2009).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강력범을 제외한 여성수감자에게 형기의 일정부분을 범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소요비용 조달, 지역주민의 반대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수감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및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녀와 여성수감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접촉,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보내는 방법 등 간접적 접촉을 활성화 할 수도 있고, 교도소 탁아시설을 운영하여 여성수감자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신연희, 2002; 이동훈 외, 2016).

세 번째는 여성출소자의 출소 이후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출소 후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녀를 만날 수 있었지만, 마냥 기쁠 수는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기간동안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였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해 보기도 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자녀와 함께 거처할 곳이 없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이혼한 남편에게 자녀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탄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따로 살고 싶은 마음에 적은 돈이라도 '내 돈'을 마련하고자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다.

어머니의 구금기간 동안 생긴 자녀와의 마음의 거리 또한 문제였다. 출소 후 여성센터에 머무르며 취업교육을 받으며 사회적응을 해 갔던 연구참여자는 출소 이후 자녀로부터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서운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된 가정환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통스러운 어린시절을 보낸 것이 모두 '엄마 탓'이라고 반항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머니의 출소 이후에도 어머니의 모습이 잠시라도 안보이면 불안해하는 자녀도 있었다. 또한,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에 나갔다고 둘러대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를 대며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기간 연락이 서로 안된 상황들은 어머니와 자녀간에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출소 후 집에 돌아와서 자녀와의 갈등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수감 중 자녀를 도맡아준 시어머니로부터 가족의 갈등이 모두 '네 탓이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문제아 자녀를 돌봐준 언니는 조카를 돌보았던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연구참여자에게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고충은 더했다. 한부모는 배우자의 몫까지 이중역할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역할 수행이 어려워 자녀들이 질적, 양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렵고(남현주, 윤희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일관성 없는 행동, 성격장애, 비행, 가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양소영, 2002). 연구참여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한 여성 출소자에게는 자녀가 등본 상에 없는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기회조차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혼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 어렵고, 자녀양육을 위해 재혼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이후 사회적인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출소 이후 자신의 신상에 수감 이력이 남아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고, 수감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 또한 어려웠다. 주거지원을 받은 집 대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알려져 이웃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자녀가 이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막연한 걱정이 늘 따라다녔다. 여성 범죄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태도에 대하여 Schram과 Morash(2002)는 일반 대중은 남성보다 여성범죄자에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좋은 여자, 좋은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와 편견 때문에 여성 범죄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박선영, 2009). 이처럼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을까,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거부될까에 대한 불안과도 싸워야 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출소자가 자녀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이 38%에 이르는 여성수감자에게 현실의 벽은 높기 때문에(이동훈 외, 2016).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부터 절실하다. 실제로 여성수감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조은경, 이인영, 2003)에 따르면 여성수감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매우 부족하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도소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수감자는 15.6%에 불과했는데 그들 중 37.4%만이 직업교육이 출소 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차훈진, 정우일, 2009에서 재인용). 이처럼 여성수감자의 출소 후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출소 후 여성출소자들이 가장으로서 생계부양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게 예측된다. 교정전문가들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의 차이로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소 후 현실에 대한 인식을 도와 수감단계부터 출소 이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역량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이동훈 외, 2015). 그밖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도와주는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여성 출소자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출소

후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대체하는 양육자 지원, 창업을 위한 현실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어머니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주 양육자의 갑작스런 부재는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외상이었다. 더불어 수감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죄책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고립무원 속 허수아비일 수 밖에 없었다. 출소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편견과 빈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녀와의 갈등 및 관계회복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여성출소자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안겨주는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살아갈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감 중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자녀를 생각하며 자살충동을 극복하기도 하고, 현실이 녹록치 않아 힘들 때, 자녀를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와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오히려 나이 많은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자녀도 있었고, 직접 경제활동을 하며 월세를 책임지고 동생 용돈까지 챙겨가며 가족을 더욱 챙기려는 자녀도 있었다. 이러한 자녀를 보며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다. 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변화되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부모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는 역경 극복의지의 원천이자 동기 자체이기도 했다.

따라서, 여성수감자들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지가 되어 주는 자녀가 학교나 또래관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돕는다면, 오히려 여성수감자들의 수감생활 적응 및 출소 후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출소자들이 어머니로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인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수감자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한 연구참여자의 말처럼 비록 수감 중인 수감자이지만 한 존재로써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출소 후에는 자녀양육에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서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또는 심리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또는 취업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출소자를 연구참여자로 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전체 출소자 가운데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 주거지원을 받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수감 중에 모범수인 경우가 많아 다른 출소자의 자녀양육경험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로서 연구참여자의 인터뷰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상당수가 자녀와 동거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부모 구금 후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어른의 보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른의 보호없이 자녀들끼리만 사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전체 응답자의 20%, 자녀들끼리만 살고 있는 자녀들의 50%는 미성년 자녀들인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한다면(신연희, 2002), 본 연구

는 모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사례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성 출소자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자녀양육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의 직접 인터뷰 방식을 결정했지만, 교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여성출소자의 남편, 자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규옥 (2007).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굿모닝충청 (2016. 1. 21). “오갈 곳 없는 출소자들... 후속 범죄로 이어져”
- 기광도 (2011).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형사정책연구, 86, 5-30.
- 김인숙 (1992).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6, 9-31.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마이데일리 (2008. 8. 18). “여성 출소자 자립, 희망” 있어도 “현실벽” 높다
- 박경숙 (2013). 문제는 무기력이다. 서울: 와이즈베리.
- 박선영 (2009). 여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gender-responsive)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미국 여성 수형자의 사례. 대한범죄학회, 3(2), 41-66.
- 박선영,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총서, 2012(3), 1-270.
- 박영숙 (2007).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10, 39-63.
- 배다현 (2008). 여성재소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다현, 신성만 (2008). 여성 재소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79-497.
- 법무연수원 (2014). 여성통계 2013. 법무연수원.
- 신연희 (2002). 기혼 여자재소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연희 (2015).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출소준비 수형자 및 출소자 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51, 219-249.
- 양소영 (2002). 편부모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 (2012).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4(1), 97-121.
-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출소자

- 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20(3), 499-530.
-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2016).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81-108.
-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 이수정, 양원석 (2011).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 대한 소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909-932.
- 이영란 (2003). 여성범죄인의 수형생활 적응 과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 (2002). *교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전영실, 신연희, 김영식 (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은, 신민정 (2014). 무기력의 심리에 관한 신경과학적 접근. *교육의 이론과 실천*, 10(3), 115-145.
- 정은영, 신희천 (2014).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1), 183-194.
- 조은경, 이인영 (2003).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조병준, 이희정 (2009). 여성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4, 221-241.
- 차훈진, 정우일 (2009). 여성수형자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38, 285-314.
- 최영신 (2009).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형사정책연구*, 77, 997-1018.
- 최영신, 황정임 (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연구총서 06-24.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799-2815.
- 최인섭, 전영실 (1992).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총서*, 15-204.
- 한영주, 이희진 (2012). 여고생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섭식행동관계에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3111-3129.
- Adalist-Estrin, A., Mustin, J., & Network, C. (2003). *Introduction to children of prisoners*. Children of Prisoners Library.
-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1, 29-42.
- Bates, R. E. (2004). *Women prisoners and recidivism: Factors associated with re-arrest one year post-release*.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Baunach, P. J. (1979). *Mothering from behind prison walls*.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Philadelphia, PA.
- Beckerman, A. (1991). Women in prison: The conflict between confinement and parental rights. *Social Justice*, 18(45), 171-183.
- Cho, R. M. (2009). The impact of maternal imprisonment on children's educational

- achievement results from children in Chicago public schoo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4(3), 772-797.
- Coll, C. G., Miller, J. B., Fields, J. P., & Mathews, B. (1998). The experiences of women in prison: Implications for services and prevention. *Women & Therapy*, 20(4), 11-28.
- Covington, S., & Bloom, B. (2003). Gendered justice: Wom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endered justice: Addressing female offenders*, 3-23.
- Dallaire, D. H. (2007). Incarcerated mothers and fathers: A comparison of risks for children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56(5), 440-453.
- Dallaire, D. H., Zeman, J. L., & Thrash, T. M. (2015). Children's experiences of maternal incarceration-specific risks: Predictions to psychological maladapt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1), 109-122.
- Elizabeth C. P., Risa K. & Eileen A. (1998). Meeting the Mental Health Needs of Incarcerated Women, *Health & Social Work*, 23(1), 71-75.
- Enos, S. (2001). *Mothering from the inside: Parenting in a women's prison*. SUNY Press.
- Ferraro, K. J., & Moe, A. M. (2003). Mothering, crime, and incarce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2(1), 9-40.
- Foster, H., & Hagan, J. (2013). Maternal and paternal imprisonment in the stress process. *Social Science Research*, 42(3), 650-669.
- Fox, G. L. (1981). *The family and the ex-offender: Potentials for rehabilitation*. New directions in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 offenders, 406-423.
- Gabel, K., & Johnston, D. (1995).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Lexington Book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2002). The question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1-18.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1985년 출판).
- Gonzalez, P., Romero, T., & Cerbana, C. B. (2007).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incarcerated mothers in Colorado.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357-373.
- Greene, S., Haney, C., & Hurtado, A. (2000). Cycles of pain: Risk factors in the lives of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 Prison Journal*, 80(1), 3-23.
- Hagen, K. A., & Myers, B. J. (2003). The effect of secrecy and social support on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of incarcerated wom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2(2), 229-242.
- Hairston, C. F. (1990). Men in prison: Famil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view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Rehabilitation*, 14(1), 23-30.
- Hale, D. C. (1988). The impact of mothers' incarceration on the family system: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Marriage & Family Review*, 12(1-2), 143-154.
- Hasting, M. E., Northman, L. M., & Tangney, J. P. (2000). Shame, guilt, and suicide. In T. Joiner & M. D. Rudd (Eds.), *Suicide science: Expanding the boundaries*. Boston: Kluwer Academic.

- Hawkins, D. F. (1995). *Ethnicity, race, and crime: Perspectives across time and place*. SUNY Press.
- Henriques, Z. W. (1982). *Imprison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udy*.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Hostetter, E. C., & Jinnah, D. T. (1993). *Families of adult prisoners*. Washington, DC: Prison Fellowship Ministries.
- Huebner, B. M., & Gustafson, R. (2007). The effect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adult offspring involv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3), 283-296.
- Kampfner, C. J. (1995).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of imprisoned mother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89-100*.
- Kampfner, C. J. (1995).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New York, NY : Lexington.
- Leapheart, P. (1997). *A review of institutional programs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females and their children*.
- Leskela, J., Dieperink, M., & Thuras, P. (2002). Sham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3), 223-226.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 MacCoon, D. G., & Newman, J. P. (2003). Dysregulation in high-anxious female prisoners: Attentionally mediate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6), 681-696.
- Morash, M., & Schram, P. J. (2002). *The prison experience: Special issues of women in prison*. Waveland Press.
- Mumola, C. J. (2000).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 Murray, J., & Farrington, D. P. (2006). Evidence Based Programs for Children of Prisoners. *Criminology & Public Policy, 5*(4), 721-735.
- Murray, J., & Farrington, D. P. (2008). The effects of parental imprisonment on children. *Crime and Justice, 37*(1), 133-206.
- Murray, J., Farrington, D. P., & Sekol, I. (2012).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mental health, drug use,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fter parental incarcer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8*(2), 175.
- O'Connor, L., E., Berry, J. W., & Weuss, J. (1999). Interpersonal guilt, sham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81-203.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4.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Poehlmann, J. (2005). Incarcerated mothers' contact with children,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50.
- Reisig, M. D., Morash, M., & Ho Lee, Y. (1999). Powerlessness, isolation, and future expectations: A gender based analysis of Korean inm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23*(2), 215-226.
- Roberts, D. E. (2000). Criminal justice and black families: The collateral damage of over-enforcement. *UC Davis L. Rev., 34*, 1005.

- Schram, P. J., & Morash, M. (2002). Evaluation of a life skills program for woman inmates in Michiga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4(4), 47-70.
- Shin, Yeunhee. (1997). *The Economic Situations of Women in Korea and Crime among Married Women*. Michigan State University Master's Thesis.
- Stanton, A. M. (1980). *When mothers go to jai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Travis, J., McBride, E. C., & Solomon, A. L. (2003). *Families left behind: The hidden costs of incarceration and reentr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Turek, E. H., & Loper, A. B. (2006). Contact between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Assessing parenting stres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3(1), 23-43.
- Urban, L. S., & Burton, B. (2015). Evaluating the Turning Points Curriculum: A Three-Year Study to Assess Parenting Knowledge in a Sample of Incarcerated Wome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66(1), 58.
- 1차원고접수 : 2016.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9. 15.
최종원고접수 : 2016. 09. 15.

A Phenomenological Approach Based on Female Ex-offenders' Parenting Experiences During and After Incarceration

Dong Hun Lee

Ji Yeol Jeon

Ji Young Shi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arenting experience of female ex-offenders during and after incarceration.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employed to deduct 12 components and 32 subcomponents from statements of deep interviews of 9 participants. Participants are female ex-offenders who had housing support or job training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under Ministry of Justice. The components are: "Concern for children's aftereffect due to maternal incarceration", "Reproaching oneself and feeling shame for own incarceration", "people who fulfill the needs of my vacancy", "concern for opening up to one's children of their maternal incarceration", "children as reasons for living", "the aftermath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children", "occupying mother's position after releasing from prison", "a fresh start after incarceration", "confronting the family conflict after incarceration",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 "national Ex-offender support services to minimize mother's absence", and "hopes of getting government support with regard to parenting".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 wer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Female, the process of incarceration and releasing from prison, parenting, Giorgi, phenomenological study